

“무덤 너머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 : E. M. 포스터의 『하위즈 엔드』에 나타난 유동적 근대성과 ‘관계맺음’의 윤리*

김 영 주

단독 / 서강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E.M. 포스터의 『하위즈 엔드』에 포착된 에드워드 시대의 근대성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포스터의 태도를 레너드 바스트와 루스 윌콕스의 죽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포스터는 『하위즈 엔드』에서 금융자본주의사회 특유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확연해진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 사회를 예리하게 인지하고 지정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자본의 유동성이 정착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결속을 해체하는 양상을 탁월하게 그려낸다. 자본을 포함한 자원의 해체력과 축적력을 양극화하는 금융자본주의사회의 유동성과 정치·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맞물려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포스터는 『하위즈 엔드』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한지를 가늠한다. 『하위즈 엔드』에서 윌콕스 일가, 슐레겔 일가, 그리고 바스트 일가로 대변되는 근대적 계층구조의 형성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맞물려 있으며, 레너드와 루스의 죽음은 거대함과 가속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사회문화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드러낸다. 포스터는 유동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727).

적 근대성의 활력에 주목하면서도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적, 윤리적 이면을 직시하고,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워즈 엔드』에서 루스와 레너드의 죽음을 둘러싼 양상은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외적인 삶에 희망을 담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치열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하워즈 엔드』에서 유동적 근대성 이후의 새로운 문명을 회구한다. 포스터에게 그 희망은 거대한 변환의 시대를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서로, 그리고 문명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 주변의 사물들과 맺는 동료애에 있다.

주제어: 근대성, 유동성, 금융자본주의, 관계맺음, 『하워즈 엔드』

I

동시대 작가인 E. M. 포스터(Forster)에 대한 에세이(1927)에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포스터의 소설의 특징으로 “시대의 영향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과 “단 몇 번의 필치로 마치 그들만의 환경에서 살고있는 듯한 작중인물들을 창조하는 힘”을 꼽았다(492). 울프는 포스터의 1910년 소설 『하워즈 엔드』(*Howards End*)(1910)에는 “슐레겔 일가(the Schlegels), 윌콕스 일가(the Wilcoxes), 바스트 일가(the Basts)가 각각 그들이 대변하는 계층¹⁾과 환경의 모든 면에서 비상한 필진성을 띠고 등장”하고 “정교함, 기술, 지혜, 통찰력,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498). 울프가 예견한 대로, 『하워즈 엔드』는 당대 영국의 사회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한 소설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이 『하워즈 엔드』를 “중간계급이라는 하나의 계급 안에서” 벌어지는 “계급전쟁에 관한 이야기”(102)로 정의한 이후, “오직 화합”(only connect)이라는 소설의 제사는 리버럴리스트 중산층 지식인을 대변하는 슈레겔 일가와 영국의 가부장적 제국주의 사업가

집안인 윌콕스 일가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주로 논의되어왔다.²⁾

『하위즈 엔드』를 마거릿 슐레겔(Margaret Schlegel)과 헨리 윌콕스(Henry Wilcox)의 약혼과 갈등, 결혼과 화해로 이어지는 소설의 흐름을 중심으로 읽는 기존의 논의에서 레너드 바스트(Leonard Bast)와 루스 윌콕스(Ruth Wilcox)는 “오직 화합”하라는 포스터의 정언에서 부차적인 인물로 여겨지기 쉽다. 실제로 많은 평자들이 두 인물의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포스터 및 울프와 동시대 작가인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는 “헬렌이 레너드 바스트의 아기를 가진 것인지, 그가 잃어버리고 만 우산으로 아기를 가진 것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고려해보아도 우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Gardner 162)고 말하며 레너드를 둘러싼 사건의 개연성과 인물 자체가 드러내는 역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³⁾ 최근의 포스터 비평에서는 조너선 로즈(Jonathan Rose)가 소설 속 레너드는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6). 에드워드 시대에 발간된 도시사무직 노동자 계층의 회고록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로즈는 당대에 새로 형성된 도시사무직 종사 계층이 계층고착화를 넘어서며 영국 사회에 역동성을 부여했다고 논의한다. 이에 비해 포스터의 사무직 종사자인 레너드는 무기건조한 업무에 묶여 있는 수인처럼 그려지며, 무기력하게 실업과 파산,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설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8, 17).

레너드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루스의 죽음도 『하위즈 엔드』의 평자들에게 소설의 개연성에 대해 의아함을 불러일으켜왔다. 루스는 『하위즈 엔드』에서 슐레겔 일가를 하위즈 엔드에 초대함으로써 상이한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는 두 일가를 잇는 역할을 한다. 『하위즈 엔드』의 첫 장은 헬렌과 폴—헨리 윌콕스의 둘째 아들—사이의 하루 나절 동안의 로맨스를 통해 슐레겔 일가와 윌콕스 일가의 가치가 조우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루스가 중산층 계급 내의 상반된 가치체계를 아우르고 화해를 주선하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소설의 전반부에서 독자는 갑자기 루스의 장례식과 유언장을 마주하게 된다. 소설이 발표된 1910년 『웨스트민스터 가제트』(the *Westminster Gazette*)에 실린 한 서평은 루스의 예기치 않은 죽음을 소설의 주요 단점으로 지목한다. “포스터 씨는 이러한 전개를 예상할 만한 어떤 단초도 제

시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인물로 윌콕스 부인을 생생하게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포스터 씨는 의도한 바대로의 강렬한 인상을 구현하는 데에 실패하고 만다”(Gardner 148).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루스의 흔적은 대도시에서 유랑하는 삶이 피폐해질 때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인 하워즈 엔드에 깃든 영혼으로 소설에 남는다. 이를 두고 앤 라이트(Anne Wright)는 루스의 바람대로 마거릿이 결국 하워즈 엔드를 상속받게 되는 소설의 구도가 작위적이며 “신비주의”적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45).

과연 『하워즈 엔드』에서 레너드와 루스는 흥미롭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인물에 불과한가? 기존 비평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렀던 레너드를 주목한 논의에서 로즈는 포스터가 『하워즈 엔드』에서 에드워드 시대의 사무직 종사자의 삶을 왜곡되게 그림으로써 모더니스트 지식인의 계급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3). 실제로 『하워즈 엔드』의 화자는 레너드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극빈계층에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 범위 바깥에 있으며, 오직 통계 전문가나 시인들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HE 55)라고 일축한다. 과연 화자의 배타적인 언술은 레너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계층에 대한 포스터의 불편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까? 소설의 후반부에서 하워즈 엔드를 방문한 레너드가 책장에서 쏟아져 내린 책들의 세례를 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설정은 레너드가 열망했던 지식의 향유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워즈 엔드』에서 루스는 변화와 속도감, 유동성으로 경험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뿌리를 제공하는 하워즈 엔드를 체화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술레겔 자매의 열정이나 헨리가 대변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활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남는다. 현재의 역동성과 도래할 미래를 체감하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루스는 과거로 회귀하는 상상력의 소산, 노스텔지어의 미학으로 여겨지기 쉽다. 루스의 죽음은 루스를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정령으로, 즉 이미 사라진 과거에 깃든 신비스러운 치유의 힘으로 신비화하는데 필요한 의례일 뿐인가?

레너드와 루스의 죽음을 둘러싼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하워즈 엔드』에 포착된 에드워드 시대의 근대성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포스터의 태도를 새롭게

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하위즈 엔드』를 “당시 영국의 현실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남성적인 영국과 미학적이고 이상주의에 찬 여성적인 영국으로 분열된 상태로 진단”하는(김영주 58) 소설로 보았던 필자를 포함한 기존의 논의를 재고하고자 함이다. 슐레겔 일가와 윌콕스 일가 간의 대립, 즉 문화와 자본, 예술과 실용성이 대립을 이루는 중산층 계급 내의 긴장 관계만을 전제로 『하위즈 엔드』를 읽을 때 루스와 레너드의 죽음의 의미가 모호하게 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윌콕스 일가의 남성성과 슐레겔 일가의 여성성의 대립과 화해를 소설의 제사로 제시된 “화합”의 대전제로 설정하고 루스와 레너드를 부차적인 영역에 두는 것은 『하위즈 엔드』에서 포스터가 주장하는 동료애가 단순히 양성뿐 아니라 계층 간, 그리고 문명과 자연 간에 가능한 관계맺음의 윤리에 닿아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포스터는 『하위즈 엔드』에서 금융자본주의사회 특유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확연해진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 사회를 예리하게 인지하고 지정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자본의 유동성이 정착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결속을 해체하는 양상을 탁월하게 그려낸다. 자본을 포함한 자원의 해체력과 축적력을 무자비하게 양극화하는 금융자본주의사회의 유동성과 정치·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맞물려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포스터는 『하위즈 엔드』를 통하여 윌콕스 일가와 슐레겔 일가, 그리고 바스트 일가 간에 “인격적인 관계 맺음”(HE 41)이 가능한지를 가늠한다. 『하위즈 엔드』에서 윌콕스 일가, 슐레겔 일가, 그리고 바스트 일가로 대변되는 근대적 계층구조의 형성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맞물려 있으며, 『하위즈 엔드』의 런던은 유동성(flux)을 기치로 하는 금융자본주의가 활성화된 소산이다. 헨리 윌콕스와 슐레겔 일가가 투자 수익과 배당금에 의존하는 상위 중산층이라면, 화재보험회사의 말단 직원인 레너드는 금융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새로 형성된 도시 사무직 종사계층의 일원으로 “중간계급의 문화적 삶과 도시빈민의 경제적 삶 사이에 불분명하게 위치해” 있다(이정화 174). 또한 ‘거대함이라는 환상’을 추구하는 헨리가 금융자본사회의 거인으로 군림하는 사회에서 루스는 태어나고 자란 하위즈 엔드에 대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의 문명’에 휩쓸리고 그녀

의 가장 사적인 삶의 경험인 죽음마저도 질병과 죽음을 관리하는 근대적 시설인 요양 병원으로 귀속된다. 레너드와 루스의 고통과 죽음은 거대함과 가속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사회문화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드러낸다. 포스터는 유동적 근대성의 활력에 주목하면서도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적, 윤리적 이면을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제시한다. 『하워즈 엔드』에서 루스와 레너드의 죽음을 둘러싼 양상은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외적인 삶에 희망을 담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치열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함을 암시한다.

II

“모든 것이 녹아내릴 거야, 온 세상에서 말이지”(288). 『하워즈 엔드』의 마지막 장에서 마거릿은 런던 쪽에서 불길하게 다가오는 붉은 먼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붉은 먼지는 『하워즈 엔드』의 주된 정서를 이루는 ‘움직임’과 ‘속도,’ 쉴 새 없이 오르고 내리는 ‘유동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메타포이다. 포스터의 소설에서 당시 사회의 불안정성은 “지난 백 년 사이에 생겨난” “움직임에 대한 열병”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진다(288). 특히 술레겔 일가는 런던에서의 유동성을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하는 삶의 요소로 받아들인다.

술레겔 가족은 전과 다름없이 런던의 잿빛 물결 속을 우아하게 헤엄치며, 교양 있고 안락하지만 한심하지는 않은 생활을 영위했다. 연주회와 연극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돈이 소비되고 생겨났으며, 명성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했다. 또 그들 인생의 표상이 되는 도시 자체도 끊임없는 물결 속에 차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그 물결은 차츰 멀리까지 퍼뜨려 서리 주의 언덕과 허트퍼드셔의 평원 에까지 이르렀다. 이 유명한 건물은 지금 솟아올랐고 저 건물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오늘은 화이트홀이 변했다. 내일은 리전트 거리의 차례다. 날이 갈수록

도로들은 휘발유 냄새가 강해졌고, 건너기는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아기를 듣기가 힘들어졌으며, 숨 쉴 공기는 희박해지고, 바라볼 하늘은 좁아졌다. 자연은 물러섰다. 나뭇잎은 한여름에 떨어졌고, 태양은 먼지들 틈새로 놀랍도록 희뿌연 빛을 쏟아냈다.⁴⁾ (105)

자본이 흘러들고 빠져나가고, 물질과 문화가 끊임없이 유통·소비되고, 도시 재개발지역이 지정되어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도심을 지나는 자동차량이 늘어나면서 대기가 탁해지고 사람들의 유대가 사라지는 대도시의 모습을 “물결” 속에 부유하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포스터의 런던은 지그문트 바우만(Zigmund Bauman)의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Shirkhani 197). 바우만은 20세기의 역사를 고체근대를 넘어 액체근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유동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 사회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설명한다. ‘액체성’은 고체근대의 견고성의 바탕이 되는 신뢰, 확신과 같은 가치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즉시성과 가변성, 관계의 휘발적 속성이 강해지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이다. 액체근대의 시대에 각 개인의 삶은 파편화되면서 사회의 각 지점에서 매순간 급변하는 상황 속에 모든 책임과 부담은 각 개인에게 남겨진다(Bauman 7-8). 바우만의 액체근대라는 개념은 근대성의 유동성을 포착하는 메타포로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유동성을 가장 잘 담보하는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대두일 것이다. 레지나 마틴(Regina Martin)은 『하위즈 엔드』에서 감지되는 끊임없는 유동성은 재화의 내재적 가치와 사용 가치를 토대로 한 산업자본주의에서 교환가치를 기반으로 한 금융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런던에서 비롯된다고 논의한다. 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마틴은 에드워드 시대에 런던이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게 된 맥락으로 도시 부동산과 건물의 급격한 가격 상승 및 보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현상을 꼽는다(450-52). 아리기는 영국의 금융자본주의가 대두된 시점을 제조업 분야의 유럽 내 경쟁이 심화된 1873년부터 1896년 사이로 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산업경쟁력의 부상과 이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제조업 분야의 이윤이 눈에 띄게 감소하자 영국의 자산가들은 더 큰 이윤을 위해

국내 제조산업 대신 해외투자자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다. 1900년 무렵에는 영국 전체 유동자금의 반 이상이 해외에 투자되기에 이르고 이러한 해외 투자의 활성화는 영국 국내 산업경제를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했다(DeLaney 288). 영국의 자본가들이 외적인 팽창을 선호한 결과, 런던은 거대한 해외금융자본이 유통되는 거점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반면 제조업의 거점이었던 영국 북부의 도시들과 농업지역은 점차 쇠락한다(DeLaney 289).

이러한 양상은 『하위즈 엔드』에서도 언급된다. 슐레겔 남매의 이모인 먼트 부인(Mrs. Munt)은 조카들에게 국내 철도 회사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지만, 그들은 “단지 예의상 몇 백 파운드를 노팅엄-더비 철도에 투자했고” “외국 회사들(Foreign Things)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노팅엄-더비 철도는 위엄을 지키면서도 서서히 하락했다”(29-30). 막대한 금융자본은 런던을 통하여 해외로, 해외에서 다시 런던으로 유통되었고, 20세기 초반 런던은 세계자본유통망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하위즈 엔드』의 런던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주 수요와 상업 지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슐레겔 일가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위컴 플레이스(Wickham Place)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탓에”(85)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하기를 거부한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값비싸고 화려한 바빌론 양식의 건물을 다시 지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착을 위한 중세적 토지 소유와 달리 투자 수익과 배당금을 위주로 한 근대적 의미의 동산 소유권에 의존하는 슐레겔 일가는 “유목민의 무리”(139)로 내몰린다. 위컴 플레이스 맞은편에는 이미 화려한 건물이 새로 들어섰고 신흥부유층인 월콕스 일가가 고층 맨션으로 이주해 온 터이다. 런던의 웨스트엔드 뿐 아니라 레너드가 살고 있는 템즈강 남동쪽 카밀리아 거리에서도 “콘크리트 건물들이 분수처럼 솟았다 무너지기를 반복”한다(56).

엄청나게 허름한 아파트 건물이 양편에 솟아 있었다. 도로 저편 끝에는 아파트가 두 동 더 들어서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새로운 아파트 한 쌍을 위해 철거되고 있었다. 도시의 흙 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며 따라, 콘크리트 건물들이 분수처럼 솟았다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 . 매그놀리아 거

리에도 여러 동의 아파트가 세워질 계획[이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도로 양편의 아파트가 모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건물들이 솟아오를지도 모른다. (56)

런던의 도심 건축의 양상이 이렇게 펼쳐짐에 따라 솔레젤 일가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소유한 많은 것들을 “짐으로 진 문명”에 합류하고(139), 쇠락해가는 농촌을 떠나 런던에 유입된 레너드는 “경박한 임시변통의 느낌이 나는”(57) 지하셋집에 거주한다. 런던에서 집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음까지 맞이하는 공간, 한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로 연계되어 이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이 공간과 맺은 관계와 기억을 삭제하고 떠나야 하는 공간이거나 임대 가구에 둘러싸여 간신히 몸을 누이는 비인격적인 장소일 뿐이다. 윌콕스 일가에게 집은 끊임없이 이주하다 필요에 따라 잠깐씩 머무르는 곳이자 무엇보다도 자산으로 축적되고 거래 가치로 가늠되는 재화이다. 헬렌이 “윌콕스 가족은 . . . 율쟁이를 모으는 것처럼 집을 수집해”라고 비꼬는 것처럼 윌콕스 일가의 집들은 대부분 비어있거나 거래될 뿐이다(155). “벽돌과 모르타르”(56) 및 “신문과 자동차”(39)로 이루어진 문명을 대변하는 윌콕스 일가의 집들은 금융자본주의 도시의 유동성과 축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위즈 엔드』에서 근대 도시의 유동성을 가장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자동차이다. 실제로 『하위즈 엔드』가 출간된 1910년 당시 영국 맨체스터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포드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고(Thacker “Motor Car,” 39),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영국에서 보유한 자동차는 32,000대에서 143,000대로 대폭 늘어났다(41). 『하위즈 엔드』에서 자동차는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장치이며, 움직임과 속도를 즐기는 헨리 윌콕스가 추구하는 근대성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소품이기도 하다. 자동차 여행을 싫어하는 마거릿은 헨리와 동행한 자동차 여행에서 걷기와는 다른 방식의 공간 경험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리 인상적인 여행은 아니었다. . .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로 달리다 보니 웨스트머랜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웨스트머랜드 주가 그렇게 지나간다면, 더욱 차분한 눈이 필요한 허트퍼드셔의 섬세한 구조 속을 제대로 여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176). 부활

절 인파로 붐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안에서 “병아리며 어린아이들”(177)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던 마거릿은 먼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풍경은 죽처럼 끊어올랐다 사그라들었다를 반복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붙었다”(177). 자동차로 인해 “공간 감각을 빼앗긴 듯이”(178) 느끼는 마거릿에게 헨리는 “자동차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니 “제비가 전신줄에 익숙해져야 하듯이” 적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77). 마거릿의 우려대로 헨리와 그의 장남인 찰스(Charles)의 자동차 여행은 종종 속도위반과 난폭운전과 연관된다(33, 87, 188). 고양이를 차로 치거나 짐마차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먼지를 일으키고 매연을 뿜어내어 마을 사람들의 작물이나 건강에 해를 끼친 사례 등은 포스터가 당시 자동차 문화가 전통적인 삶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암시한다.

『하위즈 엔드』는 자동차가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 사회에서 부와 새로운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며, 독자는 자동차로 헨리가 축적한 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1904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자동차 한 대의 평균 가격은 300파운드였으며 연 유지비는 대략 500파운드였다(Thacker 41). 마거릿의 독립적인 사유와 교양 있는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가 연 600파운드의 투자배당금이며 위컴 플레이스 맞은편에 신축된 위컴 맨션(Wickham Mansion)—거주자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를 갖춘 화려한 아파트—의 지층(반지하)의 임대료가 연 120파운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64), 헨리와 찰스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윌콕스 일가의 재산은 전통적인 농촌지주 가문 출신인 루스나 안정적인 중산층인 슐레겔 자매의 재산을 훨씬 압도한다.

또한 『하위즈 엔드』에서 자동차는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생성 및 유통 회로를 단적으로 시사하는 사물이기도 하다. 데이비드 브래드쇼(David Bradshaw)는 백만장자가 가까운 헨리의 부의 원천이 “나이저리아 고무 열풍”(the rubber fever)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의한다.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절연체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과 자전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장에 민감하며,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 된다(Bradshaw 164). 『하위즈 엔

드』가 시사하듯이, 19세기 말부터 1910년 사이에 영국에 붙어 닥친 “고무 열풍”은 아프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런던 사이에 유통되는 금융자본의 활성화를 야기한다. 포스터가 『하위즈 엔드』를 집필할 당시 “거의 매주 신규 고무농장 회사 설립을 알리는 언론 기사가 발표”되었고 런던 주식시장에서 고무의 가치는 “1845년 이전 철도 붐이 일어날 때만큼이나” 치솟았다(Bradshaw 164).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브래드쇼는 헨리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아프리카 전도가 1884년과 1885년에 걸쳐 베를린에서 열린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회담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164). “기름을 잘라내려고 이리저리 금을 그어 놓은 고래 같아”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는 헨리의 <임페리얼 서아프리카 고무회사>가 유럽 제국주의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벌어진 아프리카 쟁탈전을 무대로 설립되었음을 암시한다(HE 175). 헨리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그의 부의 주요 원천에는 아프리카 하면 연상되는 어수선하고 불분명한 느낌만이 떠올랐지만”(175), 분명한 것은 헨리가 운영하는 회사는 “거대한 사업”이고, 루스가 사망한 후 2년 동안 그의 소득은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이다(172). 헨리의 <임페리얼 서아프리카 고무회사>는 런던이라는 대도시와 아프리카 식민지라는 이질적인 공간을 잇는 매개체이자 공간의 물리적 경계 없이 유통되는 금융자본의 회로로 작동한다. 아프리카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고무가 영국에서 사용되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타이어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주재료인 점을 고려할 때, 포스터는 전 지구적 공간을 휩쓰는 자본의 유동성과 비균질적인 축적성을 자동차가 양산하는 유동성과 속도의 경험을 빌어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즈 엔드』의 인물들은 모두 “런던의 잿빛 물결,” 근대적 유동성에 휩쓸린다. 쉐레겔 자매가 잿빛 물결 속을 우아하게 헤엄쳐 다니거나 배당금으로 만들어진 섬 위에서 있는 동안 레너드는 언젠가는 “잿빛 바닷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우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68). 금융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몰락하는 농촌을 떠나 금융자본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유입된 계층인 레너드는 화재보험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종사하며 “신사 계급의 가장자리 맨 끝에”(55) 위태롭게 서 있다. 레너드는 “민주주의라는 천사”의 날개를 타고 정신의 도약을 이루어 삶을 온전하고 균질하게 보게 되기를 열

망하지만(56), 어둡고 답답한 반지하임대아파트에서 러스킨의 『베네치아의 돌들』을 읽으며 러스킨의 우아한 산문 문장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레너드의 런던과 러스킨의 베네치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더러움과 허기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훌륭하게 해본 적 없는” 러스킨의 문장에 담긴 “고상한 의지와 아름다움”을 열망하지만(59), 런던을 휩쓰는 “젓빛 바닷물”(105)의 이미지는 레너드에게는 액체근대의 유동성이 자유로움과 풍요를 약속하기 보다는 그를 숨 막히는 현실, 깊고 악취 나는 “나락”(abyss)⁵⁾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레너드와 마찬가지로 루스 역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무너져 내리는 수직적 운동성을 주된 리듬으로 하는 런던의 유동성에 휩쓸린 것으로 묘사된다. 마거릿과 크리스마스 쇼핑을 마친 후 마치 “광산의 갱도인 듯한” 길을 지나 위컴 맨션으로 돌아온 후 승강기를 타고 고층 맨션으로 올라가는 루스의 “길고 쓸쓸한 몸”은 승강기를 타고 “천국”으로 오르듯 “사라진다”(87). 기묘하게도 이 상승의 움직임은 곧이어 하강과 추락의 이미지와 병치된다. “그 천국의 하늘은—지옥처럼 검댕이 가득하고 실제로 거기서 검댕이 떨어졌다”(87). 루스에게서 보여지는 불안한 공간감각은 유동성과 속도를 추구하는 헨리의 공간 경험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루스에게 하워드 엔드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대지에 뿌리내린 영혼의 본향이지만, 헨리에게는 거대함을 추구하는 역사를 거스르는 사례에 불과하다. “소작농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소. . . 수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소농들이여, 땅으로 돌아가라고? 환상에 사로잡힌 헛소리지. 이제 소규모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소”(183). 한때 하워드 엔드의 일부였던 주변의 땅은 “구리 사업으로 돈을 번” 파크 대저택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고, 헨리는 가족을 팔고 집안을 개조하고 루스의 만류에도 조랑말 목초지에 차고를 지었다. 하워드 엔드 역시 투자 수익과 소유권, 신축과 근대화의 회로에 포섭되고 루스는 “런던의 끊임없는 유동성”과 “영원한 무정형성”(165)에 실려 부유하며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이 되어 지쳐간다(87).

『하워드 엔드』에서 그려지는 런던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성화와 도시부동산가

치의 폭등, 자동차문화로 대표되는 유동적 근대성의 소산이다. 거스를 길 없는 유동성의 물결에 휩쓸린 포스터의 인물들은 “유목민의 문명”(227)에 합류한다. 포스터는 『하위즈 엔드』에서 질문을 던진다. “거대함에 대한 환상”을 좇아 모든 것이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세계에서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외적인 삶에 희망을 담보할 보루가 될 수 있을까?

III

『우리 시대의 난제』 (“The Challenge of Our Present Time”)(1946)에서 포스터는 정치·경제적인 논제들과 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상관관계를 논한 바 있다. 먼저 그는 스스로를 빅토리아 시대의 끝자락에 속한 리버럴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리버럴리즘의 공과를 거론한다.

여러 면에서 훌륭한 시대였다. 그 시대는 자비심과 박애주의를 실천했고 인도적이며 지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했고, 예술에서 자유로웠으며, 인종에 대한 편견이 적었고, 각 개인은 각기 다르며 마땅히 다르다고 믿었고 사회의 진보를 기꺼이 신실하게 믿었다. 의회 제도의 확장으로 세계는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 여겼다. . . 그러나 [내가 받았던] 교육은 인도주의적이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경제적인 입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 교육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두둑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고매한 사유가 솟구쳐 펼쳐졌다. 우리가 줄곧 우리나라의 가난한 이들과 해외의 낙후된 인종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투자한 데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고 있음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왔다. (56)

여덟 살 때 팔천 파운드의 금융자본을 상속받은(King 29) 포스터는 자신이 추구하는 리버럴리즘의 부채가 바로 그 경제적 토대임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⁶⁾ 리버럴리

즘의 가치는 “금화로 이루어진 토대”를 잃을 때 “나락”(“The Challenge” 57)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포스터의 경고는 “이 세상의 영혼 자체가 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마거릿의 믿음과 일맥상통한다(HE 67). 포스터는 “자유방임주의는 현 사회를 “자본주의의 정글”로 유도할 뿐이라고 경고하며 “경제적 정의”를 추구할 필요를 강조한다(“The Challenge” 57). 이를 위해 계획경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회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상충될 것을 우려한다(58). 리버럴리스트로서 그는 집합체로서의 인류에 대한 신뢰 대신에 개개인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개개인은 신성한 성취이며, 개개인을 폄하하는 그 어떤 관점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포스터는 말한다(57). 포스터는 “우리 시대의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경제와 오래된 도덕을 결합”할 것을 주창한다(57).

포스터의 에세이 「우리 시대의 난제」는 『하위즈 엔드』가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을 제시한다. 『하위즈 엔드』는 헨리 윌콕스를 통해 새로운 경제의 민낯, 즉 자유방임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글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그린다. 물질적 풍요로움, 팽창주의, 효율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헨리는 끊임없이 외적으로 팽창하고 유동하는 활력을 갖추었지만, “평등도 헛소리”이고, “여성참정권도 헛소리”이며 “인성 함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문학과 예술도 헛소리”라고 주장하며 “건전한 사업가 한 명이 사회 개혁가 열두 명보다 세상에 더 보탬이 된다”고 믿는다(HE 37-38). 헨리가 새로운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구조를 대변한다면 마거릿은 “오래된 도덕”의 유효성을 주장한다. 마거릿은 박애주의자 여성들이 모여 가상의 ‘백만장자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에서 레너드에게 “1년에 3백 파운드를 주자”고 제안한다(120, 121). “돈은 문명의 낯살”이며 “독립적 사고는 십중팔구 독립적 수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거릿의 주장은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사유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한편, “소수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121)이라는 믿음을 보인다. 이 점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사적인 삶”의 품격을 우선시하는 포스터의 입장과 유사하다(“The Challenge” 55).

『하워즈 엔드』는 헨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삶과 이에 내재한 “공포와 공허함”(39)을 직시한 슐레겔 자매가 추구하는 인격적인 삶을 대척점으로 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 루스는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공조를 예리하게 감지한다. 루스에게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대화를 즐기는 슐레겔 자매나 “스포츠와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윌콕스 일가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82). 루스는 포스터가 주장하는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적인” 삶의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비극적으로 배제되고 만다. 런던을 휩쓰는 유동적 근대성의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마거릿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잃고 떠도는 유목민 무리에 합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자, 루스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자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하워즈 엔드를 마거릿과 공유하고자 한다. “자기 집과 헤어진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저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방에서 죽지도 못한다면 문명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86)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던 루스는 마거릿에게 당장에 런던을 떠나 함께 하워즈 엔드로 가자고 제안한다. 루스에게는 오래된 농가주택인 하워즈 엔드가 자동차와 소음, 휘발유 냄새와 먼지가 가득하고 거대함에 대한 환상으로 들뜬 런던으로 표상되는 근대성의 대척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루스 자신은 자신이 나고 자란 하워즈 엔드에서 죽음을 맞이 못한다. 게다가 루스의 죽음은 텍스트에서 지워지고 기입조차 되지 않는다.⁷⁾ 독자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루스가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게 된다. 조 앤 모란 크루즈(Jo Ann Moran Cruz)는 이러한 죽음의 양상은 가족의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는 것이 상례였던 에드워드 시대의 중산층 문화로 보아 이례적임을 지적한다.

『하워즈 엔드』가 발표된 1910년 무렵에는 “노약자와 환자를 위한 제도적 돌봄은 이례적이었으며, 주로 하인이나 극빈층 여성을 위한 자선 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이다(Cruz 410). 루스의 죽음은 먼트 부인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을 때 자신의 집인 스와니지(Swanage)에서 마거릿

을 비롯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사설 간호사를 고용하고 가족 주치의의 왕진을 받으며 고비를 넘긴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독자는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가족이 아닌 사회시설의 돌봄의 대상이 된 루스의 죽음은 그녀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병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 헨리는 루스에게 “허트퍼드셔[하위즈 엔드]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요양병원 입원수속을 밟는다(244). 포스터는 루스의 죽음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망 밖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히 한다. 윌콕스 일가는 루스를 요양병원에 맡기고, 여전히 어디론가 떠나고 여행하는 바쁜 일상을 유지한다. 헨리는 딸 이비(Evie)와 요크셔로 떠나고 찰스는 나폴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탓에 루스는 임종 전 이 주 동안 가족을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신혼여행지에서 황급히 돌아와야 했던 찰스의 아내 돌리는 예의바르게 애도하는 마음을 품고 싶지만, “몇 번 보지도 않은 여인의 임종 자리에 끌려 온 것”이 달갑지 않고 “이왕 죽을 바에야 결혼식 전에 죽는 편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92). 죽어가는 아내의 곁에 있지 않았던 헨리는 “죽음에 덧입혀지는 부속물들,”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보다 기억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101). 장례식을 치른 후 “다정한 어머니이자 충실한 아내”였던 루스를 회고하는 헨리의 애도는 진부하고 상투적이다(98).

반면 루스의 외병 중에 요양병원을 자주 찾아갔던 마거릿은 “고통에 사로잡혀 더욱 생생해지는 인간의 몸”과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을 목도한다(101). 『하위즈 엔드』의 화자는 루스가 “삶에서 물러나며 겪는 다른 것들”과 죽음을 맞으면서 “어두운 비밀”을 마거릿에게 마음을 열고 털어놓았음을 암시한다(101). 루스의 장례식 후에 마거릿은 루스가 “퇴화”가 아닌 “고뇌” 속에 삶에서 물러났으며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한탄이나 냉담함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희생자도 아니고 광신도도 아닌 항해자가 되어 자신이 나아가는 깊은 바다와 떠나가는 해변을 똑같은 눈길로 바라보며” 사라진 루스를 마거릿은 마음 깊이 애도한다(101). 마거릿은 “큰 파도로 그녀의 인생에 밀려들었다가 영원히 밀려나간” 루스가 임종 직전에 자신에게 하위즈 엔드를 물려주겠다는 뜻의 글을 썼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가족이 아닌 이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이 지극히 이례적인 문화에서 루스의 유언장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지켜보고 마음 속에 깃든 어두운 비밀을 나눠받은 마거릿과 루스 사이에 생긴 “우정이라는 마법”의 증표임을 화자는 던지시 암시한다(98).

병든 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단지 당사자 개인이 치러야 할 것으로 치부하고 함께 나누기를 거부했던 루스의 가족들은 오히려 마거릿이 요양병원을 방문하고 임종 무렵에 루스와 더욱 가깝게 지낸 것에 대해 “자꾸 일에 끼어들어 귀찮게 굴었다”며 못마땅해 한다(100). 장례식 후에도 이들은 “삶에 있어서 개인의 내밀한 생각”(the personal note in life)을 서로 외면하면서 어색하게 모여 있을 뿐이다(93). 간호부장의 편지를 통해 전달된 루스의 유언장은 뜻밖에도 남은 월콕스 가족이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계기를 이룬다. 예기치 않은 편지를 받아 월콕스 부자는 곧 그들에게 익숙한 “위원회라도 진행하는 듯한” 태도로 전환하여 루스의 유언장을 “항목 별로 분류해서 깔끔하게” 처리한다(97). 월콕스 부자는 “현재 대두한 항목은 필적의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찰스는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 끝에 결국 필적이 맞다는 걸 인정”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항목별 접근법을 통해 감정적 내용이 최소화”되었고(97, 98), 그들은 “법적 소유권,” “양도,” “무상 증여,” “중신 소유권,” “보상”과 같은 법리적 용어를 사용하는 “적절한 토론” 끝에 편지를 찢어서 벽난로에 던져 넣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99).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위즈 엔드가 투자가치와 소유권의 원리를 따르는 사물일 뿐이었으므로, 자신의 “영혼”인 하위즈 엔드를 나눔으로써 마법과도 같은 우정과 친밀감을 행하고자 했던 루스의 유언은 가족의 것이어야 할 “소유권에 대한 법률을 배신”한 것으로 여겨진다(98, 99). 월콕스 가족의 세계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과 신뢰는 철저히 외면된다. 가장 가까웠던 이의 가장 엄숙하고 내밀한 삶의 순간인 죽음조차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찰스는 마거릿이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이 주일 동안 의사나 간호사와 결탁하여 루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한다. 감정적이고 내밀한 소통에 서투른 월콕스 가족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부탁”(a personal appeal)을 그렇게 외면하고 마는 것이다(98).

『하위즈 엔드』에서 루스의 죽음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해 맞닿으려는 시도와 흐르는 시간 속에 한 개인의 삶이 안정된 공간 속에서 공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좌절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마거릿은 루스의 죽음을 지켜 본 이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상태를 열망하는지”를 더 뚜렷하게 알게 되면서 “진정한 관계”가 발하는 빛을, “무덤 너머에서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찾고자 한다(101). 마거릿은 포피리언 화재보험회사(Porphyrion Fire Insurance Company)의 파산 가능성을 레너드에게 알려주자는 헬렌의 제안에 동의한다. 자신이 사무직원으로 일하는 세계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로맨스의 세계를 분리한 채로 두고 싶었던 레너드가 불쑥 제시된 조언에 몹시 언짢아하자, 마거릿은 레너드에게 항변한다.

“우리는 지난 주 일요일과 다른 날들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을 불렀어요.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한 별들과 나무와 해돋이와 바람 같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죠? . . . 우리는 모두 싸워야 하지 않나요? 일상의 무미건조함에 맞서서, 지리멸렬함에 맞서서, 기계적인 유패함과 의심에 맞서서 말이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방법은 친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133)

마거릿이 언급한 “지난 주 일요일”이란 레너드가 런던 도심을 벗어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밤을 새워 서리(Surrey)의 숲을 헤매고 걸었던 것과 그 경험을 슐레겔 자매에게 털어놓으며 “공통의 교감”에 이르렀던 순간을 가리킨다(118-119). 레너드는 자연주의 문학에 고무되어 지리멸렬하고 비루하게 여겨지는 일상을 탈피하고자 열정에 가득 찬 모험을 시도했지만, 그의 모험은 빛도 없고 길도 없는 숲속을 잿빛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추위와 허기에 시달리며 해매는 무미건조한 희극으로 끝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거릿과 헬렌은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대신 “경계를 밀고 나간” 정신의 소유자라고 감탄하며 진심으로 그의 모험을 응원한다(116). 그 순간 레너드는 “부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 세상의 경이로움에 대한 공통의 교감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117). 이 날의 대화는 퀸스 홀에서 레너드와 마거릿이 처음 서로를 보았을 때의

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마거릿은 누추함이 엿보이는 레너드를 “모호한 열망, 정직하지 않은 정신, 책 겉표지에만 익숙할 뿐인” 지성의 소유자로(111), 레너드는 마거릿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교양을 축적한 유한계급의 여자로, 전차비를 아껴 음악 공연을 보러 가고 자는 시간을 아껴 책을 읽는 자신이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간극 너머에 있는 이로 보았다. 『하위즈 엔드』에서 헬렌의 놀림거리가 되었던 솔기 터진 레너드의 낡은 우산이 레너드에게 따라붙는 계층문화적 낙인으로 작동했다면, 그의 숲으로의 밤산책은 “일상의 잿빛 너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는 공통 분모가 된다. 솔기 터진 우산과 고양된 정신이라는 두 세계를 나눠놓고자 하는 레너드와 달리 마거릿은 우산으로 대변되는 레너드의 외적인 삶과 밤산책에서 드러나는 내적인 열망을 통합하는데 “친구”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레너드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추구하려는 마거릿에 비해 헨리는 사회적 관계에 무관심한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다. “슐레겔 양의 실수는 이거예요. . . 그 버릇없는 젊은이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슐레겔 양이 무슨 권리로 그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까? . . . 우리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남자라도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요”(137).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는 일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인 듯싶지만, 실제로는 헨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포피리언이 곧 파산할 거라 말했던 헨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피리언이 “[벽돌]집 만큼이나 안전한” 회사라고 말을 바꾸고, 뎀스터 은행(Dempster’s Ban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벽돌]집 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레너드는 두 금융회사를 전전하다가 정리하고 당한 후 더욱 “나락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벽돌집 비유는 표면적으로 견고함과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런던의 부동산과 건축물의 가치가 요동치고 어디에선가 건물들이 무너지고 다시 솟아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너드의 불안정한 삶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 헨리에게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마거릿에게 헨리는 다시 자신의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설파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 더 이상 어쩔 수 없소.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멍 드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요. 거기에 대해 누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요. 헬렌도 나도, 내게 정보를 준 사람도, 또 그 사람에게 정보를 준 사람도, 포피리언의 간부들도 모두 그 사무원의 봉급 감소에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냥 거기 멍이 든거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요.” (171)

포피리언 화재보험회사가 곧 파산할 거라는 헨리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레너드는 실직 후 셋집에서 퇴거까지 당한 반면, 빛나간 조언을 건넌 헨리의 사업은 무한확장을 거듭한다. 그러나 헨리는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금융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편중화는 “피치 못할 현상”이고 “부자와 빈자는 언제나 있어왔을 뿐” 모든 것은 각 개인의 몫이고 책임이어야 한다고 일축한다. 이러한 양상은 유동적인 자본의 무자비한 축적성이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하위즈 엔드』는 유동적인 근대성의 토대인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영역 뿐 아니라 윤리적 영역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준다. 마거릿이 포피리언의 건실성을 묻자, 레너드는 광고 이미지 속의 거인 포피리언을 떠올린다. “그 거인의 충동적인 품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았다. 그는 먼트 부인에게 여봐란 듯 떠벌이며 재깍 벽난로 깔개를 선물했고, 대규모 보험금 청구들을 조용히 거부했으며, 설 새 없이 소송이라는 전투를 치러나갔다. 그러나 그 거인의 진정한 실력과 경력, 그가 기업계의 신전에서 다른 신들과 벌이는 연애, 이 모든 것은 제우스의 행각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리무중이었다”(130). 레너드가 포피리언을 무절제한 올림피스의 신 제우스의 모습으로 떠올린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후에 재취업을 부탁하러 헬렌과 함께 헨리를 찾아갔던 레너드의 상상력 속에 헨리는 거인 포피리언처럼 “세상의 왕, 자기 나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구름 속에 머리가 파묻힌 채 서 있는 초인”으로 그려진다(210). 포피리언이 의심쩍은 거래를 하며 은밀하게 다른 기업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헨리는 십년 전 키프로스에서 재키 바스트(Jacky Bast)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 레너드에게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조언을 던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헨리의 행동은 키프로스에서 재키를 정부

로 삼았다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행적과 일맥상통한다. 레너드와 재키가 나락으로 빠져드는데 일조했으면서도 “저 여자를 내 정원에 있게 할 수는 없다”(203)라고 말하는 헨리는 자신이 딛고 선 쾌적한 정원이 저들의 나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부정하고자 한다.

『하위즈 엔드』는 마거릿과 헬렌, 루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개개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지난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헨리의 부도덕함에 격분했던 헬렌은 자신의 직관과 감수성에 몰입해 레너드와 단 30분 동안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관계”(270)–“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라는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성애를 통한 관계-를 맺은 후 그를 떠나버린다. 헬렌의 행동은 헨리와 상반되는 관계의 원칙을 따르는 듯싶지만, 실제로는 충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레너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긴다(271). 헬렌은 잘못을 바로잡고 그 불행한 상황에서 무언가 구원하고자 오천 파운드를 레너드에게 남기지만, 레너드는 그 돈을 고스란히 헬렌의 동생 티비(Tibby)에게 돌려주고 “직업적 거지”가 되어 모든 이들로부터 고립되어 간다. 헨리와의 결혼을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화”시키고자 했던(137) 마거릿은 결혼 중 외도를 저지른 자신의 부정은 용서를 받고도 미혼인 채 임신한 헬렌을 부도덕한 여자로 여기는 헨리에게 좌절한다. 그녀는 “상업의 시대가 닥치면서 사회의 상층 자리에 생겨난 내적 어둠”을 직시하고 그를 떠나하고자 한다(282). 『하위즈 엔드』는 과연 “새로운 경제와 오래된 도덕이 결합”되고 “경제적 정의”와 “인격적 관계”가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IV

하위즈 엔드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는 루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레너드 바스트는 하위즈 엔드에서 죽음을 맞는다. 레너드가 하위즈 엔드를 찾아가는 여정은 몇 해 전 자연으로의 길을 찬미한 책들을 섭렵하고 “땅으로 돌아가고자” 나섰던 모험과 대

비된다. 추위와 허기와 지루함으로 점철된 산책 끝에 우울한 잿빛 새벽을 맞이했던 그때와 달리, 레너드는 순례의 길에 오른 듯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다. 레너드는 새벽의 태양 아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의식에서 선행에 대한 믿음이, 누추한 삶에서 위대함의 가능성이, 죽음에 대한 예견에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레너드의 순례는 죽음으로 끝난다. 찰스가 술레겔 자매의 아버지의 유품인 독일제 칼로 내려치는 순간 레너드는 술레겔 가족이 소장하던 책더미에 덮여 죽음을 맞는다.⁸⁾ 레너드의 죽음은 한편으로 자동차와 먼지, 움직임과 속도를 추구하는 세력에 내몰려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정신의 고양에 이르기를 회구하던 열망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난다. 금융자본으로 쌓아 올린 안정된 섬 위에 올라선 이들이 손을 뺀어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밀쳐진 이들의 손을 잡는데 실패했기에 가난하고 쇠약한 청년 레너드는 죽음을 맞이한다.

루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듯이, 마거릿은 레너드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한다.

레너드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소동과 참화를 겪으며 마거릿은 이제 다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들은 합리적이 되 아무 의미 없는 행렬을 이루어 지나갔다. . . 삶과 죽음은 전부이자 모두이고, 그 예외는 킹이 퀸을 취하고 에이스가 킹을 취하는 이 질서정연한 광기뿐이었다. 아, 아니다. 그 뒤에는 지금 발밑에 누운 남자가 열망했던 것과 같은 아름다움과 모험이 있었다. 무덤 이쪽에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는 한계를 너머 더욱 진정한 관계들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본 감옥의 수인이 별들의 손짓을 읽듯이, 마거릿은 그즈음의 소동과 참화 속에서 더욱 신성한 수레바퀴들을 보았다. (280-81)

마거릿은 레너드의 죽음을 통해 질서정연한 광기의 행렬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삶 속에도 아름다움과 모험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확인한다. “무덤 너머에 있는 희망”과 “진정한 관계”에 대한 열망만이 “합리적이되 의미 없는” 삶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마거릿은 다시 한번 새긴다(281).

『하워즈 엔드』에서 루스와 레너드의 죽음은 소설 속 인물들이 포스터가 회구했던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때까지 서로 연결”하여(233)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에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오래된 도덕성의 결합이 실패한 지점에서 레너드가 공감과 연민에 근거한 고귀한 인식에 다다름을 보여준다. 레너드는 소설 속 어느 누구도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시도하지 않았던 재키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는 이제 고귀한 마음으로 재키를 연민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여자 곁을 지킨 남자의 경멸어린 연민이 아니었다. . . 그녀의 허기진 눈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했다. . . 그녀가 자비로운 정의를 받게 될 수 있을까?”(272). 레너드 자신은 “이 바쁜 세상이 자신의 부산물들에게 미처 베풀어 줄 틈이 없는 정의”를 받지 못했지만(272), 레너드의 죽음으로 하워즈 엔드는 배타적이고 동질적인 가족 공동체와 법리와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음을 시험하는 장으로 변모한다. 마거릿은 찰스의 구속으로 충격에 빠져 쇠약해진 헨리를 보살피며 하워즈 엔드에 정착한다. 결혼했지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마거릿은 아이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반면, 임신 후 영국을 떠나있는 동안 이탈리아 여성인 모니카(Monica)와 함께 살았던 헬렌은 결혼할 뜻이 없다. 레너드와 헬렌 사이의 아기는 하워즈 엔드에서 태어나 농장을 돌보는 에이브리 노파(Miss Avery)의 후손인 톰(Tom)과 평생토록 친구가 될 것이다. 루스의 바람대로 하워즈 엔드의 상속자가 된 마거릿은 기존의 계급 구조 안에 자리매김할 수 없는 어린 아이, 헬렌과 레너드의 아들을 자신의 사후 하워즈 엔드의 후계자로 지정한다. 이들은 모두 하워즈 엔드에 “정착”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287).

하워즈 엔드는 이들 모두에게 ‘움직임에 대한 열병’과 ‘끊임없는 유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런던 쪽에서 붉은 먼지가 초지 너머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어도, 마거릿은 “다음에 올 문명이 움직임 없이 대지에 멈추어 있는 문명”이기를 회구한다(288). 『하워즈 엔드』에서 포스터는 마거릿의 회구를 농가 옆에 아름답리 서 있는 느릅나무로 형상화한다. 그 느릅나무는 “집을 향해서 몸을 굽힌 동로였다. 뿌리에는 힘과 모험이 있었지만, 하늘 높이 솟은 손가락들에는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 . 그

것은 동료였다. 집과 나무는 남녀를 빗댄 어떤 비유도 초월했다. . .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영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덤 이쪽 세상의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183).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 풍성한 자연의 생명력을 품은 이 느릅나무는 나이지리아 고무 열풍에 들뜬 ‘움직임에 대한 열병’을 가라앉힐 신비로운 치유력을 지닌다. 루스와 레너드의 죽음을 치르고 난 하워드 엔드에서 포스터는 여전히 무덤 너머의 세상에서 찾아질 희망을 모색한다. 포스터에게 그 희망은 거대한 변환의 시대를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서로, 그리고 문명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 주변의 사물들과 맺는 동료애에 있다.

Notes

- 1) 울프는 바스트 일가와 슐레겔 일가, 그리고 윌콕스 일가를 각각 “영국 사회의 하위 중산층, 중산층, 상위 중산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하워드 엔드』에서 각 계층이 정교하게 “구축되어 완벽한 직물로 짜여졌다”고 평했다(497).
- 2) 『하워드 엔드』는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사회의 경제적 중추를 이루는 중산층의 구조와 문화에 대한 예리한 논평으로, 민족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와 범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충돌하는 시대상의 표현으로, 메트로폴리스 런던의 거침없는 활기와 그 이면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적인 전원주의적 가치의 복원을 제시하는 시도로 꾸준히 일해왔다. 윌콕스 일가와 슐레겔 일가의 대립과 결합에 주목한 비평으로는 윌콕스 일가와 슐레겔 일가의 관계를 “돈과 문화”의 결합으로 본 피터 위도우슨(Peter Widdowson)과 슐레겔 일가와 윌콕스 일가의 관계에서 “미학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의 긴장에 주목한 레슬리 화이트(Leeslie White) 등 참조. 『하워드 엔드』에 나타난 근대성과 공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비평으로는 앤드류 썬커(Andrew Thacker)의 『근대성을 관통하다』(Moving through Modernity) 참조.
- 3) J. H. 스테이프(Stape)는 『하워드 엔드』의 출판전 원고와 출판본을 비교함으로써 레너드와 헬렌의 관계와 성애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가 출판본에서 대부분 삭제되거나 모호하게 수정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관계에 있어서 연애와 성애보다 동료애(comradeship)를 강조하고자 하는 포스터의 주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테이프는 논의한다(132).
- 4) 『하워드 엔드』의 긴 인용문은 고정아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 5) 찰스 매스터맨(Charles Masterman)이 런던 남부의 빈민가의 삶을 기록하여 1902년 『나락으로부터』(From the Abyss)를 출간한 이후 ‘나락’(abyss)은 에드워드 시대 도시 빈민 계층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이정화 175). 『하워드 엔드』에서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난제』에서도 포스터는 리버럴리스트들이 깊게 패인 “나락”을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한다고 묘사한 바 있다.
- 6) 포스터의 대고모 마리엔 쏘튼(Marianne Thornton)이 그에게 남긴 팔천 파운드와 투자 수익으로 포스터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유럽을 여행할 수도 있었다. 포

스터는 자신이 작가가 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대고모를 꼽았다(King 29-30).

- 7) 조 앤 모란 크루즈(Jo Ann Moran Cruz)는 여백으로 제시된 루스의 죽음을 사실주의적인 맥락에서 회복시키고자 한다. 아내의 병증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던 헨리는 루스의 장례식을 마친 후 루스의 죽음에 “불가사의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HE 91). 그러나 크루즈에 따르면 포스터의 화자는 루스가 병중임을 곳곳에서 암시한다(406). 루스의 병과 죽음을 “불가사의의한” 것으로 여기는 헨리의 말과는 달리, 한동안의 기간을 두고 루스의 병색은 차츰차츰 가시화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8) 메리 핑커턴(Mary Pinkerton)은 『하위즈 엔드』의 출판전 사본과 출판본을 비교하는 글에서 포스터가 원고수정과정을 통해 레너드를 개성이 없고 수동적인 인물에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인물”로 변모시켰다고 논의한다(241). 특히 레너드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의 수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핑커턴은 화자가 오직 레너드만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찰스는 그 “남자”로, 마거릿과 헬렌, 에브리 노파(Miss Avery)는 “여자들”로 불리지만 오직 “그”만이 “레너드”로 지칭되는 장면은 레너드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선을 획득했음을 암시한다고 논의한다.

Works Cited

- 김영주. 「영국의 푸르고 아름다운 땅: 전원주의 국가 신화와 여성/성—E. M. 포스터의 『하워즈 엔드』와 버지니아 울프의 『막간』 비교 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 12권1호, 2004, 55-79쪽.
- 이정화. 「에드워드 시대 사무직 계층과 문화적 구별짓기: 포스터의 『하워즈 엔드』」. 『현대영미소설』 16권1호, 2009, 171-88쪽.
- 포스터, E. M. 『하워즈 엔드』. 고정아 역, 열린책들, 2006.
- Bauman, Zygmunt.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2000.
- Bradshaw, David. “*Howards En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M. Forster*, edited by David Bradshaw, Cambridge UP, 2007, pp. 151-72.
- Cruz, Jo Ann Moran. “Attending to Reading E.M. Forster: *Howards End* and Ruth Wilcox’s Unattended Death.” *Modern Fiction Studies*, vol. 61, no. 3, 2015, pp. 404-22.
- Delaney, Paul. “‘Islands of Money’: Rentier Culture in E. M. Forster’s *Howards End*.”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1880-1920*, vol. 31, no. 3, 1988, pp. 285-96.
- Forster, E.M. *Howards End*. Edited by Alistair M Duckworth, Bedford Books, 1997.
- _____. “The Challenge of Our Time.” *Two Cheers for Democracy*, A Harvest Book, 1951. pp. 55-60.
- Gardner, Philip, editor. *E.M. Forster: The Critical Heritage*. Routledge, 1973.
- King, Francis. *E.M. Forster and His World*. Thames and Hudson, 1978.
- Martin, Regina. “Finance Capitalism and the Creeping London of *Howards End* and *Tono-Bungay*.” *Criticism*, vol. 55, no. 3, Summer 2013, pp. 447-69.
- Pinkerton, Mary. “Ambiguous Connections: Leonard Bast’s Role in *Howards End*.”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31, no. 2, 1985, pp. 236-46.

- Rose, Jonathan. “Intellectuals Among the Masses; or, What Was Leonard Bast Really Like?” *Biblion: The Bulleti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vol. 2, no. 2, 1992, pp. 3-18.
- Shirkhani, Kim. “The Economy of Recognition in *Howards End*.”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54, no. 2, 2008, pp. 193-216.
- Thacker, Andrew. “E.M. Forster and the Motor Car.” *Literature and History*, vol. 9, no. 2, 2000, pp. 37-52.
- _____. *Moving through Modernity: Space and Geography in Modernism*. Manchester UP, 2003.
- Trilling, Lionel. *E.M. Forster*. Hogarth Press, 1944.
- White, Leslie. “Vital Disconnection in *Howards End*.” *Twentieth-Century Literature*, vol. 51, no.1, 2005, pp. 43-63.
- Widdowson, Peter. “*Howards End*: Fiction as History.” *Howards End*, edited by Alistair M. Duckworth, Bedford, 1997, pp. 364-78.
- Woolf, Virginia. “The Novels of E.M. Forster.”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Vol. 4, edited by Andrew McNeille, Harcourt Books, 1994, pp. 491-501.
- Wright, Anne. *Literature of Crisis, 1910-22: Howards End, Heartbreak House, Women in Love, and The Waste Land*. St. Martin’s, 1984.

Abstract

“hope even on this side of the grave”?: Liquid Modernity and the Ethics of Personal Relations in E.M. Forster’s *Howards End*

Youngjoo Kim
Sogang University

E.M. Forster’s *Howards End* (1910) was written at a time of democratic debates over the suffragist campaign for equal rights and parliamentary campaigns for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surface, Forster’s novel holds itself aloof from such issues, but in *Howards End* Forster addresses with elaboration and penetration concerns for social vulner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market economy. Since its publication in 1910, much of the critical discourse surrounding *Howards End* has accepted the question of ‘who shall inherit England?’ as a main challenge that the novel presents and invited the reader to look into the schism within the British middle class represented by the Wilcoxes embodying an imperial and capitalist England and the Schlegels an aesthetic and liberal England. Such tendency among critics is not sufficiently attentive to Forster’s brilliant and comprehensive social commentary on Edwardian England. This paper proposes to consider the flights and deaths of Ruth Wilcox and Leonard Bast and to offer a corrective reading to the previous discussion of the novel that mainly focuses on the cultural tensions between the Schlegels and the Wilcoxes. It aims to acknowledge Forster’s uncanny sensitivity to his own times and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novel makes a compelling

argument about rootless cumulative capitalism and social vulnerability caused by the flux of liquid modernity. Writing at the time of democratic debates over injustices in the law of economy and the consequent depersonalization, Forster puts into scrutiny his own liberalist beliefs in personal relations and calls for the ethics of comradeship in *Howards End*. The attempts and failures in connecting, as shown in the flights and deaths of Leonard and Ruth, reveal that Forster’s beliefs in responsiveness to others are at once sturdy and fragile, thereby making the novel enthralling.

Key Words: modernity, flux, finance capitalism, personal relations, *Howards End*

논문접수일: 2021. 1. 22.

심사완료일: 2021. 2. 04.

게재확정일: 2021. 2. 24.

이름: 김영주

소속: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825

이메일: youngjoo@sogang.ac.kr

